

정희성목사 춘천 그레이스 교회 담임목사취임예배



2009년 3월 1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정희성목사 춘천 그레이스 교회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가 그레이스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120여명이 넘는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참석하여 정희성목사의 첫 담임

목회 취임을 축하하였다.

박원호 목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소망했던 일 꿈꿨던 일들 주님의 역사를 이곳 새사역지에서 펼치기를 바란다 했다.

정희성목사에게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을 받고 세례교육을 받은 참석 교우 한분은 세례를 받을 때의 모습 잊을 수 없다며 담임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항상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한다.

춘천그레이스 교회는 세린교회로 강원노회에 명칭 청원 중에 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교회라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세린교회 춘천시 후평 2동 22-1, Tel : 033-257-8927) 임경수 편집장

한국심장재단에서 감사패 전달



지난 3월 17일(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그간 후원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

단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왔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04년부터 연간 900만원을 격월 150만원씩 여섯 차례에 나누어 후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심장 수술비가 크게 비싸지면서 분기별로 30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한번에 한명의 어린이를 직접 후원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역은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 앞으로 더 확장될 계획이다.

반가운 소식은 그간 주님의교회를 통해 지원받아 수술한 어린이들은 27명에 이르며, 모두 완쾌되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까지 모두 30명을 후원하게 될 전망이다.

구제사역팀 문완홍 안수집사

남극동물

이민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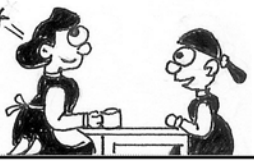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거든"



"남극에 사는 동물 5마리 써오래~"



"근데 나는 물개하고 펭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엄마?"



"물개 두마리와 펭귄 세마리라고 써 내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1:5)

〈새벽기도111운동〉

청년들의 새벽기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주님의교회 젊은이들의 열정 청년 새벽기도를 소개합니다
젊은이(20-30대 싱글, 커플)들이 6시15분 1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111

1년에 1회 1주간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맛보고자 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찾는 기쁨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입으며,
기도를 시작하는 청년들은 기도의 영을 받고자 합니다

젊은이 공동체에서는 새벽기도111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1운동이란 1년에 1회 1주간 새벽기도를 나오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섬기시는 모 집사님의 따뜻한 아침식사도 제공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없는 사랑의 아침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기도도 하고, 아침도 먹고, 교제도 하고 참 좋습니다. 식사 후에 학교로 직장으로 매일 아침 새롭게 길을 나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주님의교회 청년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청년들이여! 새벽기도 합시다. 믿음대로 기도하는대로 됩니다.

과연 그러한가 기도해봅시다!

-청년부 담당 공광승 목사

3월 정기당회 결의사항

- 1) 지하주차장을 모임실로 변경기로 함.
- 2) 교적, 재정(경리), 현금 전산 프로그램의 통합관리 프로그램 도입기로 함.
- 3) CCTV 16대 추가 설치기로 함 - 화재, 도난, 기타 안전 대비.
- 4) 교회 내 각 부실 창문 블라인드를 점검하여 교체기로 함.

- 5) 부목사 배현성, 이강찬목사의 계속 청빙을 노회에 청원기로 함.
- 6) 노회 총대에 김성배, 김양자, 신정웅, 조성재장로를 선출함.
- 7) 총회 주일헌금 지원기로 함.

2009. 03. 27. 작성자 : 당회서기, 김현덕 장로

위원장 김창안 장로 | 편집장 임경수 안수집사 | 기자 임연옥 집사, 심원일 집사 | 사진 서정하 기자 | 디자인 김세나 간사 | 담당교역자 김주형 전도사

[오늘의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 1

통 권 제 24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9년 3월 29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오늘 3월 29일 1층 로비 중앙에서 '소그룹 예비 사진전'이 열린다. 이 사진전은 336개의 소그룹 활성화와 새로이 구성되어 아직은 서툰 소그룹 가족들의 화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개체로서 기획된 행사이다. 잘 찍은 사진이나 프로의 사진보다 이야기가 있는 사진, 그룹원들에게 의미와 재미가 있는 사진을 찾고 있다. 소그룹 별로 2장에서 5장의 엄선한 사진을 받고 있으며, '축제 주일'에 정식 '소그룹 사진전'이 열린다. 시상은 교구별로 10개의 소그룹에게 시상하게 될 예정이며, 소그룹별로 사진을 선별하는 즐거움 과정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진 사역팀 김은성 안수집사 okeskim@hanmai.net

* 지면상 모든 소그룹 사진을 실어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성경

2009 주님의교회 사역박람회

신교사역본부 | 복지지역본부 | 예배지역본부 | 봉사지역본부 | 소그룹제자화지역본부
어린이지역본부 | 청소년지역본부 | 젊은이지역본부 | 기타 지역

3월29일 교회1층 로비및 지하주차장

www.pcltv.org

교회절기안내-사순절② 2면

봉사부 탐방기 (차량봉사부) 3면

3월 정기당회 결의사항 4면

교회절기안내-사순절 두번째

세례 준비 기간으로서의 사순절

지난 호에는 부활절의 준비 기간으로서 사순절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부활절을 중심으로 초대 교인들이 영적 준비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신학적인 의미를 연재하고자 한다.



〈참고도서〉 William Teller, trans, Cyril of Jerusalem and Nemesius of Emesa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5), p. 68; Leo P. McCauley & Anthony A. Stephenson, trans, The Works of Saint Cyril of Jerusalem, Vol I(Washington :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c1969), pp. 108-118 "On Baptism"에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p. 116에서 세례 예비자들의 40 일 동안의 준비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Week/ 성주간) 금요일에 몸을 정결히 하고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하루나 이들의 기간 동안 온전히 금식하며 철야 기도하며 부활절 아침의 세례를 준비토록 했다. 그리고 4세기에 부활절에 이르기 전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인들이 세례 받을 사람들과 함께 금식에 동참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참고도서〉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p. 149 참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주후 150-215/216)는 설립자 판테누스(Pantaenus)에 이어 알렉산드리아의 수준 높은 교리문답학교(Catechetical school 또는 세례 문답식 학교) 2대 교장이었다.

〈참고도서〉 Maxwell E. Johnson, The rites of Christian (Minnesota : The Liturgical Press Collinsville, 1989), p. 3; Clement of Alexandria, Stromateis 1-3, The Church Father Vol, 85 (Washington :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91), p. 3; Hans Von Campenhausen, The Fathers of the Greek Church (London : Adam & Charles Black, 1963), p. 26.

그는 헬라철학과 영지주의가 함께 공존하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2-3년의 세례교육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그 기간 동안 도덕적 품성과 지적 기능에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지 않고 곧바로 세례를 주었다.

〈참고도서〉 Philip Schaff, 『교회사 전집 2: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 이상길역 (서울 :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 249; 조기연, 『기독교 세례의식』(서울 : 만남과 나눔, 2007), p. 124에서 Michel Dujaier, A History of the Catechumenate: The First Six Centuries (New York: Sadlier, 1979), p. 43 재인용.

세례와 관련한 금식의 길이는 처음에는 하루나 이틀로부터 시작하여 4세기 중엽에 세례 지망생들은 예수님께서 사역 전 광야에서 행하신 40일 간의 금식(마 4:2), 시나에서 행한 모세의 금식(출 24:18, 신 9:9),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기 전에 행한 금식(왕상 19:8)의하여 40일간 금식했다.

〈참고도서〉 Edward T. Horn, 『교회력』, p. 125.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감독 시릴(Bishop Cyril of Jerusalem)은 세례 예비자들에게 교리 강연을 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참회를 위한 40일 간의 은혜의 긴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40일의 금식을 뒷받침 한다.

한편 부활절 세례를 위한 금식은 갈수록 완화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금식의 준수는 매우 엄격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먹는 하루의 한 끼 만의 식사만이 허용되었고, 물고기와 육식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달걀과 우유로 만든 음식도 엄격히 금지시켰다. 그러나 9세기 이후 서구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상당히 완화되기 시작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종 생선이 허용되기도 하였고 주일에는 신선한 고기가 허용되기도 하였다. 중세 후반에 와서는 정오 미사 이후에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금식하는 시간의 변화가 있기도 하였다. 어거스틴(주후 396-430/ 로마령 아프리카에 있던 도시 히포의 주교)의 시대에 와서는 사순절이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었다. 그래서 사순절은 모든 이가 참회하는 기간이었으며 기독교인들의 영적훈련에 필요한 방법인 금식이 사순절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참고도서〉 남효, 『교회력에 따라 예배하기』, pp. 37-38.

사순절은 특히 세례와 관련하여 공동체성을 견고히 하는 기간 있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의 세례자 교육이나 세례를 받고 난 후의 공동체성은 초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약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의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초대교인들은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간 금식하며 준비하신 것처럼 매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따라서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세례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례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도서〉 주승중, 『은총의 교회력과 설교』, p. 149 참조.

김주형 전도사

봉사부 탐방기 <차량봉사부>

한번 차봉부는 영원한 차봉부!



1. 어떤 경우라도 다투지 마라
2. 어떤 경우라도 웃어라
3. 어떤 경우라도 손흔들여라
4. 우리는 항상 교회의 가장 낮은 자로서 봉사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심성(내공)을 TEST해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차량봉사를 해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봉사부장인 최재규안수집사 와 마주했다. 주일날 1부에서 4부예배 출입차량이 운동장 및 뽕스주변까지 대략 4천여대가 된다. 숫자에 놀란 기자에게 그 차량의 정리에 필수인원이 60명인데 현재 30명으로 파트별근무는 엄두를 못낸다고...

"저희봉사부원 평균 7-8년 이상이 대부분이고 자천타천 떠났다가도 힘든사정 알기에 말없이 복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힘든 직분을 왜 연임하셨느냐 묻자 '제 경우인데요' 많은 지식과 재능과 전문성을 요하는 봉사는 못하지만 부족한 자에겐 마음껏 할수있는 봉사지요 오히려 저희가 은혜를 더 받고 있습니다, 내가한번 웃어주고 손흔들여 드리면 답례가 있잖아요.

처음교회오신 가족분을 정문에서부터 교회내부까지 안내하며 상세하게 설명드렸더니 한참 후 '저희식구들 오늘 등록했어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손흔들고 가시는 모습에 봉사부 모두가 큰 은혜 받으셨어요. 너무감사하지 않습니까?

'차량이용 성도께 당부요? 방향등을 꼭 켜주시고 차량내 전화번호 꼭 남기시고 차량전면유리에 교회스티커부착 하시고 싸이드브레이크 풀어주시는 것 거둬 당부드립니다.

"서두의 심성 TEST답은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총무이신 김이권집사님이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않는 것 입니다" 허긴 서울의 S교회 차량봉사는 전원 장로님으로 운영됨은 이미 전설이다.

'주일의 새벽6시부터 오후3시까지 춘하추동교회 외부는 저희가 지킵니다. 힘들고 고달파도 팀웍 하나는 최고지요 서로가

저오는 간식이 넘치고요 끈끈하기가 여간 아니지요 그래서 한번 차량봉사부는 영원한 차량봉사부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던 말인데도 감동된다.

산뜻하게 가꾸진 봉사부실의 새벽 유기영목사님의 간절한 시작기도로 마음을 다잡고 부원들의 우렁찬 구호소리가 찰떡처럼 울린다.

하나: 어떤 경우라도 다투지 마라

둘 : 어떤 경우라도 웃어라

셋 : 어떤 경우라도 손흔들여라

넷 : 우리는항상 교회의 가장 낮은자로서 봉사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He is truly happy who makes others happy!

(다른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사람이 진실로 행복하다)

임경수 편집장

주님의교회 입교세례문답 교실입니다.

주님의교회에는 입교세례문답교실이 있습니다.

2009년에는 4월 5일과 11월 1일에 성인을 위한 입교세례예식이 / 그리고 5월 3일(어린이주일), 9월 6일, 12월 25일(성탄일)에는 유아세례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통해 예식의 내용을 알아봅니다.

①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로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입니다.

자격은 유아세례 교인이나 원입교인(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여하는자)으로서 교회생활을 잘 감당하는 15세 이상 된 자가 받는 예식이고 예식은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담임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습니다.

권리는 완전한 교인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공동의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일을 결정할 수 있으며 세례교인의 생활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예배에 참여할 것은 물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사업 등에 헌신하며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②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장하여 (15세 이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다음 담임목사에게 입교식을 받습니다. (입교 후에는 세례인과 같은 권리와 생활을 가집니다)

③유아세례는 세례교인(입교인)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28:19)

자녀(부모 중 1인도 가능)로서 믿음생활을 성실히 감당하는 부모로 인해 2세 미만 된 아기가 받는 예식입니다. 부모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자녀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입교세례예식과 유아세례에 대한 안내가 나갈 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입교/세례문답교실에 들어오는 일은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세례 받을 준비가 되어가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해성 목사
019-365-9191

